

'느닷없는 혈세 28억' 의혹 투성이

광주시 특급호텔 '공중통로' 설치 지원 결정과정 논란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와 서구 치평동 특급호텔을 연결하는 '공중통로(Sky Walk)'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특급호텔 사업자와 지난 2006년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중통로 개설 문제가 4년이 지난 2009년 말에서야 DJ센터 이사회에서 처음 거론됐으며, 그로부터 수개월 뒤 전격적으로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특급호텔 사업자와의 공식적인 협약도 없이 지원 비율이 결정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DJ센터 측으로부터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DJ센터와 특급호텔을 연결하는 공중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DJ센터 측은 "광주컨벤션센터운 조성용역"에서 DJ센터와 주변 시설물을 연결하는 통로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후 호텔 사업자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이사회가 광주시에 연결통로 개설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DJ센터 측은 그러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 비율이나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DJ센터 이사회에서 공중통로 사업을 건의한 뒤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이 사업은 지난 4월 감작스럽게 내부검토가 이뤄져 전체 사업비 40억원의 70%인 28억원을 올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DJ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DJ센터의 예산이 낙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맡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비율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특급호텔 사업자에 대해 투자양해각서에도 없는 연결통로를 개설경우 기록하고, 지원규모도 비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투자양해각서나 협약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나중에서야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라며 "28억원이라는 세금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센티브로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 완공 예정인 서구 치평동 특급호텔과 맞은편 DJ센터를 연결하는 130m 길이의 공중통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제2차 추경예산안에 설계비 명목으로 1억 6000여만원을 계상해 광주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1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꽃문화 축제'에서 시민들이 꽃문화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꽃문화발전협의회(이시장 남영숙)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들여다보니

"김치축제 기간 1만5천 포기 쌉 값에 공급하라"

강운태 광주시장은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 지역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김치축제 참가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일부 실·국장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강 시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서 오는 13일 미술장식심의 위원회를 열어 건축물 2곳의 미술장식 설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축물 2곳이 어디냐고 묻는 강 시장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농업기술센터 역시 코레일 소속 1호선 전동차를 3개월간 자체 특산물 홍보테마 전동차로 운행하겠다고 했으나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또 환경생태국 역시 생활쓰레기 김량 및 재활용 대

책을 "활성화하겠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등 추상적으로 답했다가 강 시장에게 후원 질책을 받았다.

강 시장은 "내년에 세계도시환경정상회의를 하기로 한 광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 보고하면 서로 답답할 뿐이며, 몇 차례 이야기한 것인데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시민교통국에 대해서 강 시장은 "교통사고 줄이기는 끝자와의 전쟁보다 더 어려워 복합적인 문제"라며 "매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세계김치문화축제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김치축제장에서 매일 3000포기씩 모두 1만5000포기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일반인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신재생에너지 주도권 다 뺏긴 것 아니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거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지사는 11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실패했고 졌다"면서 "다른 나라는 열발씩 내딛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 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에 태양광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긴데 이어, '그린'과 '바이오'로 대표되는 분야에서 한참 뒤지고 있는데 정부가 신산업인 해상풍력단지 시범단지 조성 등에 적극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만이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이 전국 최고라는 강점 등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투자유치를 비롯한 5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00㎿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계획을 밝혀놓고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영광 대마산을 방문한 뒤 1년 가까이 됐는데도 (해상풍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이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만큼 이상하게 일하는데도 없다"면서 지경부를 경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꿈틀거리는 사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직원들의 적극적인 일처리를 주문했다. 피드백이 필요하고 자기 분야가 아닌, 남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토탈행정서비스를 해야 행정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총장로 현혈의집' 전국 현혈 2위

전남대는 6위 기록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130개 '현혈의 집' 중에서 가장 많이 현혈을 한 곳은 대구 동성로 현혈의 집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나연 의원이 치평동 현혈의 집에 대한 현혈실적 상위 10곳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동성로 현혈의 집

현혈자(2만 99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총장로 현혈의 집(2만 9154명)과 경기도 의정부 현혈의 집(2만 8739명)·부산 서면 현혈의 집(2만 539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현혈실적 6위를 기록한 전남대 현혈의 집(2만 2496명)은 대학 내 설치된 현혈의 집 가운데 가장 높은 현혈실적을 기록했다.

/채희경기자 chae@

지역 암환자 서울 원정치료 급증

광주 45.9%…1년새 18.9%P 늘어 전국 최고

전남지역 67.6% 달해…상급병원환자는 줄어

광주와 전남지역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속속 민주당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의료전달체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서울로 이동한 암환자 비율이 2002년 27.0%에서 2008년 45.9%로 18.9%포인트 늘어나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에 이어 서울로 이동한 암환자 비율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으로 14.3% 포인트(53.3%→67.6%) 늘었으며, 대구 13.1% 포인트(6.8%→19.9%), 경북 12.3% 포인트(29.6%→41.9%)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지능형교통체계

오는 2020년까지 추진

광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지역 내 시내버스가 우선 통행하도록 하거나 불법주정차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등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4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국비 지원 폭과 시기가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

이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지능형교통체계(ITS) 종합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의 국감

▲법사위·순천교도소 시찰(오후 2시)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성학과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입과

우리과 특징 5가지

-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 창업스쿨·알짜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등 실무중심 수업
-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졸업후 직원▶매니저▶점장▶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b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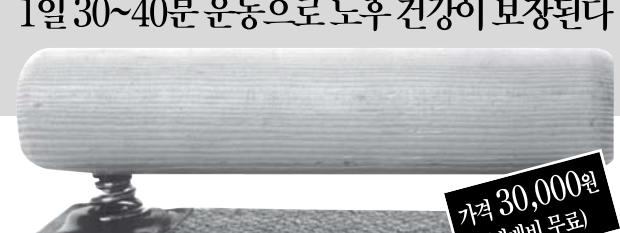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일학 학과실(062) 230-8410 cafe.naver.com/bxbb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복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골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액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예방 할 수 있음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는다.
-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반복하좌, 우 교대로 한다.
-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를 차차 횟수를 늘여 1일 3,000회 이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놓는다.

놓는다.

놓는다.

놓는다.

온라인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온라인계좌: NAVER 카페 bxbb

온라인계좌: NAVER 카페 bxbb

이번 저희 모친(이채례)喪事時公·私間에 어린弔意를 베풀어주신德으로 祈願드립니다. 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真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2010년

년

월

일

자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

임